



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8. 4.(목) 조간 | 배포 일시 | 2022. 8. 3.(수) 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| 책임자 | 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준수 (02-2100-2865) |

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

-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, 국내 기업의 **경쟁력 회복** 및 **신산업 진출**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.

1 추진배경

-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“**디지털전환·탄소중립**” 등 **환경 변화**가 가속화되고,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.
-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,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2 사업재편 지원방안

-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,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**금융지원 연계가 곤란**하였습니다.
- ※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(66.3%) 승인당시 **신용등급 BB 이하**(‘21.6말 기준),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관점의 검토 부족
- ※ 산업부는 「기업활력법」에 따라 ①신산업 진출, ②과잉공급 완화, ③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기업 중 심사를 통해 ‘사업재편기업’을 지정

⇒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**사업재편기업**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**사전선별 강화** 예정입니다. (1차 결격요건 심사, 2차 TCB 평가 도입)

- 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*하고
결격사유 해당여부**를 판단하며,

*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 상주 및 심사 담당

** 결격사유(안) : 한계기업 여부, 요주의 이하(CCC), 자본잠식 등

- ②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B 社에 의해 기술성과
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.

※ 매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은 일반 신용평가만으로는 적극적 금융
지원이 어려워,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는 기술신용평가(TCB) 필요

- 기술신용평가(TCB*)를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
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,

* TCB 평가결과는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및 대기업의 하청업체 관리 등에 활용중

- 재무제표 분석 및 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할
예정입니다.

< 사전선별 강화 후 사업재편기업 선정 절차('22.9월~) >



- 또한 현재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·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,
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.

⇒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,
1.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※ 사업재편 승인기업(기업활력법상 선정), 사업재편 추진기업(승인기업 포함, 일반적 사업재편 추가)

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2,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
- KIAT 중심의 「사업재편 혁신펀드」(750억원)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% 이상,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% 이상 투자예정이며,
- 기은 중심의 「사업재편 펀드」(1,450억원)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%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.

② 또한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·보증 상품을 통해 7,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산은은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(5,000억원)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△1.0%p 인하 예정이며,
- 신보는 「사업재편 보증」(1,000억원)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·보증료·보증한도 우대*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
* (승인기업) 보증비율 95%, 보증료를 최대 0.5%p 차감, 한도사정 우대
(추진기업) 보증비율 90%, 보증료를 0.2%p 차감

- 신보는 또한 「사업재편기업 P-CBO」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,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③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1,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

※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취지

3 향후 계획

□ '22.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, TCB 평가를 도입하고,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.

○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, 장기,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금융위원회 | 책임자 | 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 |
| | 산업금융과 | 담당자 | 사무관 김준수 (02-2100-2865) |
| <공동> | 산업통상자원부 | 책임자 | 팀 장 박홍일 (044-203-4230) |
| |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| 담당자 | 사무관 안용열 (044-203-4231) |
| <공동> | 산업은행 | 책임자 | 부 장 안성진 (02-787-6901) |
| | 영업기획부 | 담당자 | 팀 장 정용수 (02-787-6906) |
| <공동> | 기업은행 | 책임자 | 부 장 김상희 (02-729-6810) |
| | 여신심사부 | 담당자 | 팀 장 이명우 (02-6322-5249) |
| <공동> | 신용보증기금 | 책임자 | 부 장 박주현 (053-430-4331) |
| | 신용보증부 | 담당자 | 부부장 계종성 (053-430-4332) |
| <공동> | 한국자산관리공사 | 책임자 | 처 장 천성민 (051-794-4500) |
| | 기업자산매각지원처 | 담당자 | 팀 장 방준규 (051-794-4540) |
| <공동> | 한국신용정보원 | 책임자 | 부 장 전필수 (02-3705-5938) |
| | 기술정보부 | 담당자 | 선임조사역 염준형 (02-3705-5948) |